

2016학년도 모의논술

논술시험 (인문계)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전형
수험번호		성명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20분이며, 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답안이 지정된 작성영역을 벗어난 경우 감점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한 경우 결격처리될 수 있습니다.
- 라.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 마. 답안 수정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바. 답안지 전면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논술시험 (인문계)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개체와 집단 중 어느 쪽이 지혜로운가?’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5점)

<제시문 1>

지성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식창조이며,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소위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탈근대화 시기에 전문가의 위상과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전문가의 능력이 쇠퇴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현실 속에서 문제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제기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즉, 제기된 문제가 정확하고 엄밀하다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현상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제제기가 필수적이며, 이것이 전제된다면 전문가의 가치는 오히려 이전 시대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전문가이다. 또한 전문가가 제기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도 전문가이다. 결국 대단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전문가적 지식 혹은 지혜는 더욱 가치를 갖게 된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대중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판단은 무용하다는 맥케이(Mackay)의 1932년의 지적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제시문 2>

개인들이 모일 때마다 곧바로 군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서로 뒤섞이고 합해져서 변모한다. 그들은 자신의 성질을 억누르는 공통된 성질을 획득하며, 자신들의 개별적인 의지를 침묵시키는 집단 의지에 복종하게 된다. 이러한 압력은 실제적인 위협을 나타내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에 휩쓸리고 있다고 느낀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항상 움직이며 우글거리는 이 사회적 동물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 무턱대고 자신을 던지기 전에 뒤로 살짝 물러서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공포증을 느낀다. 이러한 반응들은 군중의 힘과 그것이 일으키는 육체적인 반향(反響) 그리고 그 반향을 통해서 사람들이 군중에 게 있다고 추정하는 효과를 증명한다. 모파상(Maupassant)은 필적할만한 학자가 별로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그 효과를 훌륭하게 묘사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게다가 또 하나의 다른 이유에서 나는 군중을 싫어한다. 나는 극장에 들어갈 수도 공적인 축제에 참가할 수도 없다. 그곳에서 나는 곧 마치 저항할 수 없는 신비한 영향력과 전력을 다해 싸우는 것처럼 괴상하고 참을 수 없는 불편함과 굉장한 신경질을 느낀다. 그리고 사실 나는 나의 마음속에 파고들려고 하는 군중의 혼과 싸운다. 나는 사람이 혼자서 살 때는 지성이 강해지고 향상되지만, 다른 사람들과 섞이면 지성이 약해지고 쇠퇴하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사람들과의 접촉, 널리 퍼져 있는 관념,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 듣고 들리며 또 대답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은 사고에 영향을 준다. 여러 관념들이 머리에서 머리로, 집에서 집으로, 거리에서 거리로, 도시에서 도시로, 민중에서 민중으로 밀려왔다가 사라지면서 어떤 수준이 확립되는데, 그것은 수많은 개인의 집합체 전체가 만들어 낸 지성의 평균이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갖고 있는 자질, 즉 지적인 창의력, 자유의지, 분별 있는 성찰력, 심지어는 통찰력 등의 자질이 그가 많은 사람들 속에 섞이면 일반적으로 곧 사라진다.”

논술시험 (인문계)

<제시문 3>

개인의 의사결정은 모든 부분을 빈틈없이 고려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해오던 익숙한 방식을 거쳐서 ‘그 정도면 됐다’는 수준에서 대부분 마무리 된다. 즉, 그만하면 됐다 정도인 '최초의' 대안이 해결책으로 채택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대안의 개수는 너무나 많은데 반해 개인의 인지적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성과 합리성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개인은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이 말했듯이 ‘제한적 합리성’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불완전한 판단을 적절한 방법으로 합치면 집단의 지적 능력(collective intelligence)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낼 때가 많다.

어떤 상황에서 집단은 놀랄 만큼 똑똑하며, 때로는 집단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 따라서 특별히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집단을 지배해야 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구성원 대부분이 특별히 박식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집단적으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집단의 지적 능력이란 집단을 하나의 개체로 볼 때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한 가지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개별적 지능의 합과는 다르다.

<제시문 4>

도덕이나 종교는 인간의 사회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뒤르케임(Durkheim)의 말처럼 집단정신을 나타내는 것 같다. 이 때문에 한 개인에게는 불합리하고 자가당착인 것처럼 보이는 도덕이나 종교는 그 집단이나 사회의 통합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커지고 분화되면서 발달함에 따라 옛 집단정신이 이제 현실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적이고 폐쇄적인 원리나 율법이라는 원 안에 갇혀 있는 한 그 사회는 이 원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으며, 이러한 종교와 현실이 접촉된 부분 부분에는 독단적인 종교의 자가당착적인 면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자가 당착은 지능을 가진 개인의 눈에 놀랍고 모순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이다. 이제 지능을 가진 개인은 종교를 가능케 하는 힘을 강압으로 느끼게 되며 현재의 도덕 또한 억압으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억압에 저항하여 새로운 도덕이나 종교의 원리를 창안해낸다. 이 창조의 근원이 생의 약동이다. 생의 약동은 특별히 뛰어난 개인, 뛰어난 신비거나 영웅으로부터 분출하여 지금까지 폐쇄적이고 순환적인 정적 도덕과 종교의 테두리를 부수고 전진한다. 어느 시기든지 이를 구현한 예외적인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리스도교의 성자들 이전에 인류는 그리스의 현인들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불교의 아라한과 그 외 다른 사람들을 보아 알고 있다.

<제시문 5>

집단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적 곤충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데 뛰어난 지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곤충 개체는 집단과 분리되어 있을 경우 동일한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 사회적 곤충들은 도대체 어떻게 개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집합적 차원에서 ‘지성적’ 행동을 만들어 내는 것일까? 해답은 바로 사회적 곤충 개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있다. 사회적 곤충의 상호작용은 ‘행동신호(stigmergy)’라고 불리는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어느 한 개체가 움직일 경우 그 흔적이 다른 개체의 행동을 유도하는 추가적인 자극의 근원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거대한 개미집과 같은 협력의 산물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여전히 지역적(local) 차원의 단순한 규칙을 따르지만,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시적 차원의 복잡한 현상이 나타난다. 언뜻 보기에 독립적인 개체의 행동이 다른 개체의 행동에 일련의 연쇄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전체 집단이 마치 하나의 단위체처럼 움직여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논술시험 (인문계)

[문제 2] 아래 <사례>를 해석하고, 그 해석이 시사하는 바를 [문제 1]의 한 입장과 연관 지어 서술하시오.(25점)

<사례>

1968년 잠수함 스콜피온(Scorpion) 침몰 사건 이후 미 해군은 돌발사고로 침몰한 선박 위치 확인을 위한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해군 장교 크레이븐(Craven)의 제안에 따라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전략으로 진행되었다. 크레이븐은 수학자, 잠수함 전문가, 인양 전문가, 해류 전문가 등 4명의 전문가들에게 서로 상의하지 말고 침몰 선박 위치에 대해 각자 시나리오를 만들어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다음 ‘베이즈 정리(Bayes’ Theorem)’를 활용하여 침몰 선박의 위치를 추정했다.

‘베이즈 정리’는 어떤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왔을 때 사건 발생 확률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크레이븐이 한 일은 간단히 말해서 침몰 선박 위치에 관한 집단 전체의 추정치를 구하는 것이었다. 훈련 결과 제시된 수치와 침몰 선박의 실제 위치 사이의 오차는 다음과 같다.

구분		오차
전문가가 각자의 시나리오에 따라 예측한 결과	전문가 A	700m
	전문가 B	980m
	전문가 C	430m
	전문가 D	650m
크레이븐이 모든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예측한 결과		2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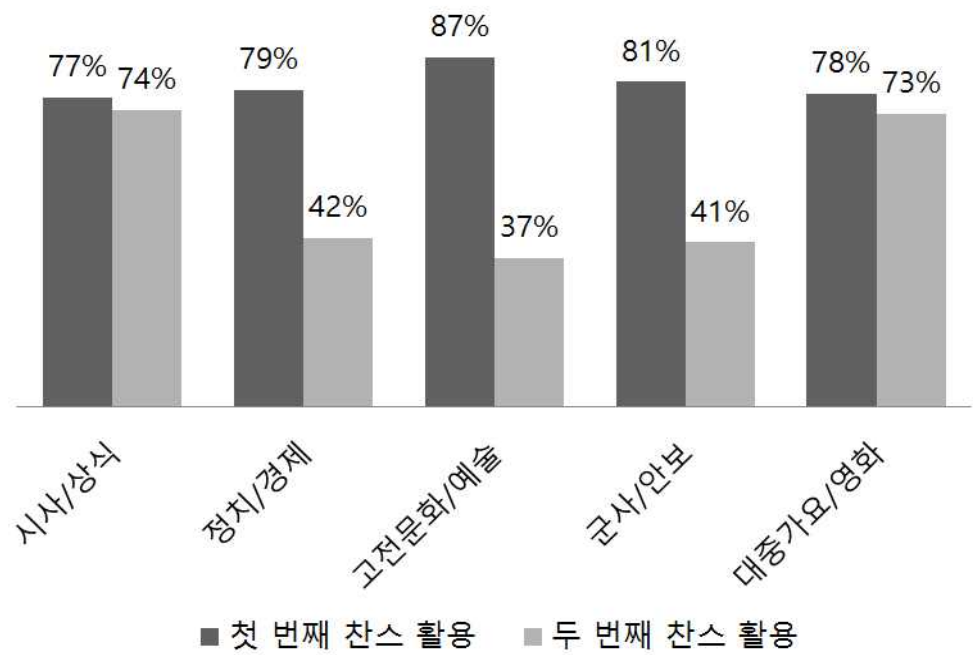
[문제 3] 아래 <자료>가 보여주는 현상을 상세히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한 입장을 옹호하시오.(25점)

<자료>

생방송 ‘도전! 퀴즈왕’ 프로그램에는 객관식 문제 풀이에서 참가자가 답을 결정하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찬스가 있다. 첫 번째 찬스는 참가자가 미리 선택한 사람과 직접 통화하여 힌트를 얻는 것이고, 두 번째 찬스는 일반 시청자들의 ARS 투표 참여 결과를 이용해 힌트를 얻는 것이다. 문제는 다섯 영역에서 출제되는데, 아래의 두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문제 풀이에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찬스를 사용하여 얻은 힌트를 통해 참가자가 정답을 맞힌 비율은 다음과 같다.

<규칙1> 참가자는 방송 시작 전 첫 번째 찬스를 사용할 때 통화할 대상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규칙2> ARS 투표에 참여하는 일반 시청자는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 번 투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방송이 끝난 뒤 정답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시청자가 투표한 답에 투표한 사람들 중 몇 명을 뽑아 선물을 지급한다.



논술시험 (인문계)

[문제 4] 수험생 당신이 ‘첨단 IT 제품 개발 후 시장 진출을 노리는 CEO’ 라고 가정하자. 사업 성공을 위한 정보 수집에 아래의 두 가지 참고자료 중 어떤 것이 좋을지 선택하고, [문제 1]의 한 입장에 근거하여 그 선택을 정당화하시오.(25점)

<참고자료 1 - 위키피디아(Wikipedia)>

‘위키피디아’는 위키를 이용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웹 기반의 다언어 백과사전입니다. 위키피디아는 중립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유 콘텐츠 백과사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누구나 참여하여 문서를 수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는 ‘중립적 시각’에서 사태를 바라보며 다수 의견과 고려될 가치가 있는 소수 의견을 편견 없이 공평하게 반영합니다. 위키피디아의 글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고, 누구나 고칠 수 있는 자유 콘텐츠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다른 사용자를 존중하며 엄격한 규칙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문서의 내용을 고치고, 옮기고, 바꾸셔도 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고자료 2 - 브리태니커(Britannica)>

1768년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출간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중세의 미몽에서 깨어나 새로운 지식을 찾아 나섰던 근대 서구인들에게 그때까지 인류가 쌓아온 지식을 한 곳에 담은 참되고 신뢰할 만한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그 뒤 240여 년에 걸쳐 15판까지 판을 거듭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지식을 추가하고, 세계 곳곳의 상세한 정보를 덧붙임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백과사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브리태니커 집필에는 4,000여 명의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했습니다. 역대 저자에는 아인슈타인, 마담 퀴리, 러셀 등 세기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노벨 경제학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 세계적 과학 저술가 칼 세이건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